

# 부산항 운영개선을 위한 혁신제안 심사결과 발표

## 최우수작, 부산-인천항간 컨테이너운송 허용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은 부산항의 전반적인 환적화물 감소 추세 등 부산항 위기극복을 위한 부산항 운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BPA), 부산해양연맹과 함께 공모한 “부산항 운영개선을 위한 혁신제안” 심사결과를 11월 17일 부산청, 부산항만공사(BPA) 및 부산해양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11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외국선사의 부산항-인천항간 컨테이너 운송 허용” 제안서를 제출한 채희정씨가 최우수상을 차지해 상장과 함께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또 이현석씨(외 2명)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어린이 홍보전략”을 비롯한 9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상장과 각 2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 받게 된다. 부산청은 이달 중으로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함께 관련 제안을 부산항 운영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부산항 관리·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간 공모한 이번 혁신 제안

공모전은 부산지역 해양 관련업체·단체·학계 및 일반인들이 참가해 총 41건의 우수한 내용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부산청 관계자는 “우수한 작품이 많이 제출되어 심사위원들이 우수작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선정된 우수 제안들은 부산항 운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최우수작(1건) : 채희정 - 외국선사의 부산항-인천항간 컨테이너 운송 허용제안

▷ 우수작(9건) : 이현석 외 2명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어린이 홍보전략, 노경식 - 부산항 예인선 통합 운영 콜 센터, 안남순 - 신항내 태풍대피처 지정 운영방안, 홍지의 - 선사 위험물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안, 차임곤 - 부산항 경비보안 혁신제안, 윤남중 - 선사 운항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Tailor-made Marketing) 기반조성, 박건호 - O-2묘박지의 확대 지정 방안, 전준용 - 부산항 경비.보안과 관련한 사항, 김시복 - 부산항 환적(T/S)화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해양조선 세미나 개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부산사무소(www.eucck.org)는 11월24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부산롯데호텔에서 필수 비즈니스 전략으로서의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를 주제로 한 해양조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한국 및 유럽의 조선업체, 선주, 공급업체, 특수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조선산업에 대한 4개의 주제발표와 EU대표부의 브라이언 맥도날드(Brian McDonald)신임 대사 참석한 가운데 만찬이 있었다.

세계 경제의 침체분위기 속에서도 최근 수년간 세계 해상물동량 증가 및 고유가 등에 따른 고부가가치 선박의 발주 증가에 힘입어 2003년 이후 꾸준히 세계 1위를 유지하는 한국 조선업의 비약적 발전이 올해 선박수출실적 200억 달러라는 쾌거를 이룩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업계에서는 이미 3년치 수주 물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